

II. 에티엔느 라모트의 『나가르주나의 대지도론』 제일권 서문

우정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폴 드미에빌에게 헌정함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나가르주나의 『마하반야바라밀경석론(Mahāprajñāpāramitāśāstra)』(약경명 Mppś) 혹은 『대지도론(Traité de la Grande Vertu de Sagesse)』(위대한 지혜에 관한 논서: *Treatise on the Great Virtue of Wisdom*)라 불리는 논서¹⁾ 제일 편~제십오 편까지의 역주본을 마주할 것이다.²⁾ 이 논서는 산스끄리트 원본 없이 오직 한역본 *Ta tche tou louen*³⁾을 통해 전승되었다. 구십 품(品, p'in) 백 권(卷, kiuan)으로 구성된 이 판본을 쿠첸 출신 꾸마라지바가 CE 404~405년에 걸쳐 장안 소요원당(逍遙園堂)에서 집필하였다.⁴⁾ 『대정신수대장경(Taishô Issaikyô)』 제이십오 권, 천오백구 호(號)를 저본으로 삼았으며, 번역본 페이지 여백에 인쇄된 번호는 『대정신수대장경』의 쪽 및 단 번호이다.⁵⁾

Mppś는 꾸마라지바의 한역 *Mo ho pan jo po lo mi king*(摩訶般若波羅蜜經)(Taishô T XXV, N° 223)에서 드러나듯이 *Pañcaviṃśatisāhasrikā Prajñāpāramitā*(약경명 *Pañcaviṃśati*) 즉 『이만오천송반야경(Vertu de Sagesse en vingt-cing mille articles)』(*The Perfection of Wisdom in Twenty Five Thousand Lines*)의 주석서이다. 『마하반야바라밀경』의 번역본으로는 한역본 넷, 티베트어본 하나 그리고 산스끄리트 교정본과 이 교정본의 티베트어본이 현존한다.

I. 네 한역본은 다음과 같다.

(1) 『광독경』⁶⁾(Taishô, T VIII, N° 222), 다르마락사(Dharmarakṣa) 번역. 이십칠 품⁷⁾ 십 권, CE 286년.

(2) 『방광반야경』⁸⁾(Taishô, T VIII, N° 221), 목살라(Mokṣala), 승가라찰(Saṃgharakṣa) 번역. 구십 품 이십 권, CE 291년.

(3) 『마하반야바라밀경』⁹⁾(Taishô, T VIII, N° 223), 꾸마라지바(Kumārajīva) 번역. 구십 품 이십칠 권, CE 403~404년. 이 판본은 풍부한 주석을 곁들인 『대지도론』에 온전히 복원되었다.

(4) 『대반야바라밀다경』¹⁰⁾(Taishô, Vol. VII, N° 220), 사백일 권부터 사백칠십팔 권에 걸쳐 『이만오천송반야경』의 장대한 발췌본을 포함한다. 현장 번역 CE 660년~663년.

1) 구십 편, 백 권으로 이루어짐.

2) 본서는 그 일부인 제일 편~제사 편까지의 역주임.

3) 『大智度論』

4) 프라보드 찬드라 박치(Prabodh Chandra Bagchi), 『중국의 불경(*Le canon bouddhique en Chine*)』, vol I, Paris, 1927, p. 197. — 대부분의 불교 저술과 달리 Mppś는 티베트어 번역본 없이 오직 한역으로 전한다. 돈황본 Mppś와 카라후토(Kharakhoto)본 Mppś에 관해서는 『불교 문헌(*Bibliographie bouddhique*)』, Tome I, 1930, N° 105; Tome IV~V, 1934, N° 307 참조. 인도 언어학자 박치(1898~1956)는 파리 대학 국가 박사, 실뱅 레비의 동료, 인도와 중국의 언어와 문명 교류 관련 저술을 남겼다.

5) 『중국의 트리빠따까, 개정판(*The Tripitaka in Chinese, revised*)』 collated, added, rearranged and edited by Prof. J. Takakusu and K. Watanabe, 55 Vol., Tokyo, 1924~1929.

다카쿠스 준지로(高楠順次郎, 1866~1945), 불교학자·인도학자로 『대정신수대장경』, 『남전대장경』, 『우파니샤드 전서』 저술. 와타나베 가이쿄쿠(渡邊海旭, 1872~1933), 스트라스부르 대학에서 산스끄리트, 빠알리, 티베트어를 전공한 비교종교학자, 『대정신수대장경』과 『보현행원찬(普賢行願讚)』 저술. 존경받는 정토종 대승 정신의 실천적 연구자.

6) *Kouang tsan king*, 『廣讚經』

7) pin=parivarta(品)

8) *Fan kouang pan jo king*, 『放光般若經』

9) *Mo ho pan jo po lo mi king*, 『摩訶般若波羅蜜經』, Mppś(『대지도론』)의 저본

10) *Ta pan jo po lo mi king*, 『大般若波羅蜜多經』

마츠모토(T. Matsumoto)¹¹⁾가 이 네 한역본 내용의 유용한 목록을 작성하였다.

2. 티베트어본 경칭은 *Śes rab kyi pha rol tu phyin pa stoñ phrag ñi śu lña pa*¹²⁾이며 칠십육 품(leḥu=parivarta) 칠십팔 편(sections, bam po=*khaṇḍa*)으로 이루어져 있고, 역자 명에 관한 언급은 없다. 간쥬르(Bkaḥ-ḥgyur, 불설부), 藏(ser phyin), II부(secton)에 속한다. 베이징 간쥬르 네 권(Vol. ñi-di : 국립도서관 티베트 장서, N^{os} 40~43) 및 날탕(Narthang) 승원의 간쥬르 세 권(Vol. ka-ga : 국립도서관 티베트 장서, N^{os} 385~387)을 구성하고 있다.

3. 경부 말미에 경명을 반복 기술한 산스끄리뜨 교정본 명칭은 *Āryapañcaviṃśatisāhasrikā bhagavatī prajñāpāramitā abhisamayālaṃkāranusāreṇa saṃśodhitā*이며 팔 품으로 이루어져 있다.¹³⁾ N. 두트가 정립한 경명으로 미루어 알 수 있듯이¹⁴⁾ 이 경은 산스끄리뜨 원본 『이만오천송반야경』의 재교정본이며 『현관장엄론』¹⁵⁾의 주석서 간행을 목적으로 출간된 이본이다.

4. 산스끄리뜨 교정본의 티베트어역 경명은 *Śes rab kyi pha rol tu phyin pa stoñ phrag ñi śu lña pa*¹⁶⁾이다. 하지만 산스끄리뜨 원본 제목의 축자역에 상응하는 진정한 제목은 *Ḥpags pa bcom ldan ḥdas ma śes rab kyi rol tu phyin pa stoñ phrag ñi śu lña pa mñon par rtogs paḥi rgyan gyi rjes su ḥbraṅs nas dag par gtugs pa*이다. 팔 품 칠십사 부로 구성되어 있다. 티베트어 목록을 신뢰한다면 그 저자는 싱하바드라(Simhabhadra) 혹은 하리바드라(Haribhadra)¹⁷⁾, 역자는 산띠바드라(Śantibhadra)¹⁸⁾, 교정자는 자야실라(Jayaśīla)이다.¹⁹⁾ 간쥬르(*Mdo ḥgrel* section, Tomes. III, IV 와 V, Tibetan material in

11) T. Matsumoto(松本文三郎), 『般若文獻(Die Prajñāpāramitā-Literatur)』(Bonner orientalische Studien, Heft 1), Stuttgart, 1932, p. 38~41. 마츠모토 분자부로(1869~1944)는 독일-인도 철학 전공 불교학자, 『印度密教と弘法大師の真言』(六大新報社, 1910), 『弥勒淨土論』(丙午出版社, 1911), 『仏教芸術とその人物』(同文館, 1923), 『真言密教の興るまで』(真言宗京都大学, 1925) 등

12) 『智慧到彼岸百千頌』

13) 첫 네 품은 날리카나샤 두트(Nalikanasha Dutt)가 비평적 주석과 서문을 추가하여 편집하였다(『二萬五千頌般若經(The Pañcaviṃśatisāhasrikā-Prajñāpāramitā ed. with critical notes and introduction)』(Calcutta Oriental Series, n° 28), London, 1934.

14) 같은 책, p. V~VII.

15) 테오도르 체르바스키(Theodor Stcherbatsky)와 유진 오베르밀러(Eugene Obermiller)의 편집본. 『現觀莊嚴論-般若-論議-論, 미륵보살 저술(Abhisamayālaṃkāra-Prajñāpāramitā-Upadeśa - Śāstra, the work of bodhisattva Maitreya)』, Fasc. I : Introduction, Sanskrit Text and Tibetan Translation(Bibliotheca Buddhica, No. XXIII), Leningrad, 1929. 테오도르 체르바스키(1866-1942)는 『불교논리학(Buddhist Logic)』을 저술한 러시아의 불교 인식론 대가. 그 제자 유진 오베르밀러(1901~1935)는 티베트어본 『寶性論(Ratnagotra vi bhāga)』을 번역하여 쥬제페 투찌(Giuseppe Tucci, 1894~1984)와 더불어 티베트에 전승된 산스끄리뜨 불교 문헌 연구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하였다.

16) 『般若波羅蜜多二萬五千頌』

17) 사자현(師子賢), 팔 세기 인도에서 활동한 자이나교 및 후기 중관파 논사. 인도의 육파 철학을 다룬 『육파철학집론(Saddarsanasmuccaya)』, 『現觀莊嚴論光明一八千頌般若經註釋(āryāṣṭasāhasrikaprajñāpāramitavyākhyāyāna-abhisamayālaṅkāraloka)』 등 저술.

18) 11세기 위대한 논사이자 명상가인 나로빠(Naropa)의 스승 겸 제자.

19) Palmyr Cordier, 『국립도서관 티베트 장서 목록(Catalogue du Fonds Tibétain de la Bibliothèque Nationale)』, Paris, 1915, III, p. 276. 아티샤의 법문을 티베트어로 번역한 빅슈 팔미르 코르디에(1871~1914)는 티베트 불교 문헌학자, 인도 의학 연구자로서 『바그바따와 아슈탕

the National Library, N^{os} 198~200)에 수록되어 있다.

Mppś 도입부 열다섯 편은 『이만오천송반야경』의 서두²⁰⁾ 주석에 해당하며 『십만송반야경』과 『일만송반야(Daśasāhasrikā)』 같은 반야부 경전 도입부 어휘와 동일한 어휘를 사용하여 재집필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뿌라즈나(Prajñā)에 관한 몇몇 문헌 정보를 밝히는 것이다. 티베트어본과 중국어본의 경우는 마르셀 랄루와 마츠모토의 훌륭한 연구를 참조하는 것으로 충분하리라.²¹⁾ 산스끄리트 뿌라즈나 문헌 목록의 경우는 주석에 기술하는 정도로 대신한다.²²⁾

Mppś는 나가르주나(龍樹)의 저술로 되어 있다. 꾸마라지바의 한역 제목이 ‘大智度論,²³⁾ 龍樹菩薩造,²⁴⁾ 後秦龜茲三藏法師鳩摩羅什詔譯²⁵⁾이기 때문이다. 597년 비장방²⁶⁾이 편찬한 『歷代三寶紀(Li tai san pao ki)』의 트리빠따가 목록 역시 원저자를 보디사뜨와 나가르주나로 기술하고 있다.²⁷⁾ 하지만 기이하게도 『龍樹菩薩傳(Long chou p'ou sa tchouan)』(Taishō N^o

가리다야삼히따(Vagbhata et l'Astangahridayasamhita)』 저술.

20) nidāna, 緣起

21) M. Lalou, 『뿌라즈나빠라미따 티베트어본(La version tibétaine des Prajñāpāramitā)』, Journal asiatique, July~Sept., 1929, p. 87~102. — T. Matsumoto, 『뿌라즈나빠라미따 문헌(Die Prajñāpāramitā-Literatur)』, Stuttgart, 1932, p. 22~25.

22) Śatasāhasrikā P. P.(『十萬頌般若』), éd. 뿌라따빠타파찬뜨라 고샤(Pratāpachandra Ghoṣha), Biblioteca Indica, Calcutta, 1902~1914.
Pañcaviṃśatisāhasrikā P. P.(『放光般若經』), éd. N. Dutt(Calcutta Oriental Series), London, 1934.

Daśasāhasrikā P. P.(『一萬頌般若』) dans Sten Konow, 『一萬頌般若 첫 두 편(The two first Chapters of the Daśasāhasrikā)』, restoration of the Sanskrit Text, Analysis and Index (Avhandling utgitt av det Norske Videnskaps-Akademi i Oslo), Oslo, 1941.

Aṣṭasāhasrikā P. P.(『八千誦般若』), ed. 라젠달랄라 미뜨라(Rājendralāla Mitra), Biblioteca Indica, Calcutta, 1888. — 이 오류투성이 판본은 다행히 Abhisamayālaṅkāra edition(Tokyo, 1932~1935)에 포함한 Wogihara의 Aṣṭasāhasrikā로 대체된다.

Suvikrāntavikrāmi P. P.(『善勇猛般若』) dans T. Matsumoto, o. c., en appendice.

Saptaśatikā P. P.(『七百頌般若』), ed. 주제페 투찌(G. Tucci), dans Memorie della R. Accademia Nazionale dei Lincei, Vol. XVII, 1923, fasc. I ; éd. J. Masuda, in Journal of the Taishō University, Vol. VII, 1030, p. 186~241.

Vajracchedikā P. P.(『金剛般若』), éd. 막스 뮐러(M. Müller) 『옥스퍼드 논총(Anecdota Oxoniensia)』, Aryan Series, Vol. I-Part I), Oxford, 1881.

Adhyardhaśatikā(『般若理趣經』), P. P., éd. 에른스트 로이만(E. Leumann), 『북방 아리아 언어 및 문학(Zur nordarischen Sprache und Literatur)』, Strassburg, 1912, p. 84 seq.(이 논문을 통해 『般若理趣經』 즉 『대락금강불공진실삼마야경(大樂金剛不空眞實三摩耶經)』(不空譯)의 산스끄리트본이 공개되었다); éd. S. Toganoo와 H. Izumi, Prajñāpāramitānayaśatapañcsatikā, Kyoto, 1917.

Prajñāpāramitāhridayasūtrā(『般若心經』), éd. M. Müller(Anecdota Oxoniensia, Aryan Series, Vol. I part III, Oxford, 1884.

23) Ta tche tou louen

24) composé par le bodhisattva Nāgārjuna

25) trauit par le Tripiṭikadharmācārya Kumārajīva du pays de K'ieou tseu[Kucha] des Ts'in postérieurs(composed by the bodhisattva Nāgārjuna and translated by the Tripiṭikadharmācārya Kumārajīva of the country of K'ieou tseu of the later Ts'in

26) Fei Chang-fan, 費長房. 중국 수왕조의 저명한 학자. 『釋門正統』, 『釋氏通鑑』, 『佛祖統紀』 등

27) P. C. Bagchi, 『중국의 불경(Le canon bouddhique en Chine)』, T. I, p. 197.

2047) 및 티베트 사학자 부뎨(Bu ston)²⁸⁾과 따라나타(Tāranātha)²⁹⁾가 쓴 불교 역사서들에는 나가르주나의 저술 목록에 Mppś가 보이지 않는다.

티베트어 'Klu sgrub'로 용에게 교화받은 자³⁰⁾ 혹은 용들을 교화한 자,³¹⁾ 한자로는 용수,³²⁾ 용맹,³³⁾ 용승³⁴⁾을 의미하는 나가르주나 보디사뜨와는 불교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또한 가장 풍요로운 인물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그는 아마도 CE 2세기를 살았던 대승 불교의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라. 인도 남부 안드라국³⁵⁾ 출신인 그의 영향력은 인도 서북부까지 미쳤다. 논사이자 형이상학자인 그는 대승 혹은 중관 학파의 창시자로서 대승의 불교학과 신비를 수용하면서 구시대의 불교 서적들을 부정적 시각으로 비판하며 절대 공성³⁶⁾에 이르렀다. 나가르주나의 이론은 아시아와 유럽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대승이 절대적 존재인 어떤 실재를 인정하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었다. 루이 드 라 발레-푸생은 오랫동안 이 학파가 니힐리스트이며 절대를 부정했다고 추정했다.³⁷⁾ 반면 테오도르 체르바스키는 나가르주나가 오직 존재를 긍정하기 위해 외양을 부정했을 뿐이라고 믿었다.³⁸⁾ 몇 차례 논쟁을 거치면서 발레-푸생은 체르바스키의 입장으로 선회한 반면³⁹⁾ 체르바스키는 예전에 발레-푸생이 주장하던 논제들을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었다.⁴⁰⁾ 그런데 나가르주나에 관해 제기되는 문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풍부한 산스크리트, 티베트어, 중국어 자료들이 Mppś의 저자의 삶과 저작들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정보들은 경이로움에 잠겨 있고, 연도나 출생과 관련하여 복수의 나가르주나를 언급하며 동일한 전설들을 반복하기에 어쩔 수 없이 서로 연관성을 지닌다. 이 전설들을 막스 발레서가 분석하였고⁴¹⁾, 아마도 몇 가지 불확실한 세부 사항을 포함한 듯한 이 발레저의 저술을 요약하여 모리즈 빈터니츠가 『인도 문헌사』 제2판에 수록하였다.⁴²⁾ 독자들은

28) 소승, 대승, 금강승 세 종파의 개념을 확립한 티베트 학승(1290~1364), 『불교사(History of Buddhism)』 저술.

29) 多羅那他(CE 1573~1615년?), 사카파 지파인 초낭파에 속하는 인물로서 『인도불교사(History of Buddhism in India)』 저술.

30) Converti par un Dragon, converted by a dragon

31) Convertissnar les Dragons, converting the dragons

32) Long chou, Dragon-arbre, dragon tree, 龍樹

33) Long mong, Dragon farouche, unflinching dragon, 龍猛

34) Long cheng, Dragon-victorieux, victorious dragon, 龍勝

35) Andhra, 텔루구어를 사용하는 인도의 오래된 주. 1956년에 안드라 주와 하이데라바드 주가 현재 안드라프라데시(Andhra Pradesh) 주가 되었다.

36) le vide absolu, the absolute emptiness, śūnyatā

37) L. de La Vallée Poussin, *Madhyamaka*, 종교·윤리학 백과(Encyclopedia of Religion and Ethics), VIII, p. 235~237; *Nirvāṇa*, Paris 1925; 불교 교의와 철학(*Le dogme et la philosophie du Bouddhisme*), Paris, 1930, p. 113~118; *Madhyamaka*, 중국학·불교 논문집(Mélanges Chinois et Bouddhiques), Vol. II, 1932~1933, p. 1~59.

38) Th. Stcherbatsky, 『불교 니르바나의 개념(*Conception of Buddhist Nirvāṇa*)』, Leningrad, 1927, p. 35~39.

39) L. de La Vallée Poussin, 『불교(*Buddhica*)』, Ha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III, 1938, p. 146~158.

40) Th. Stcherbatsky, 『불교 철학의 세 가지 방향(*Die drei Richtungen in der Philosophie des Buddhismus*)』, Rocznik *Orjentalistyczny*, Vol. X, 1934, p. 1~37; 『中邊分別論(*Madhyānta-Vibhaṅga*)』, Leningrad, 1936, p. VI~VIII.

41) M. Walleser(1874~1954), 『티베트와 중국 출전 나가르주나의 생애(*The Life of Nāgārjuna from Tibetan and Chinese Sources*)』, Hirth Anniversry Volume, London, 1922, p. 421~455. 막스 발레서는 하이델베르크 불교학연구소 교수 역임, 『고대 불교의 철학적 토대(*Die philosophische Grundlage des älteren Buddhismus*)』. Winter, Heidelberg 1904, 『빠라주나 빠라미따(*Prajñā Pāramitā*)』. Vandenhoeck & Ruprecht, Göttingen 1914 등.

이 두 저술을 참조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이후로 여러 다양한 정보들이 축적되었다.

『능가경(Laṅkāvatāra Sūtra)』,⁴³⁾ 『대방등무상경(Mahāmeghasūtra)』,⁴⁴⁾ 『마가마야경(Mahāmāyasūtra)』,⁴⁵⁾과 『대방광보살장문수사리근본의귀경(Mañjuśrīmūlakalpa)』⁴⁶⁾에서 발견된 나가르주나와 관련한 일련의 예언들 역시 우리의 관심을 끌기는 마찬가지다.

대승 철학자 나가르주나 외에도 마술사, 연금술사, 탄뜨라 저자로서의 하나 혹은 여러 나가르주나가 존재하였다. 이미 우리가 지닌 정보 외에도 주세페 투치⁴⁷⁾와 실뱅 레비⁴⁸⁾가 출간한 자료들을 추가해야겠다. 더욱이 나가르주나는 밀교와 진언종 주요 서적 가운데 하나인 『대비로자나성불신변가지경(Mahāvairocanasūtra)』⁴⁹⁾을 발견하고 대중에게 공개했던 것 같다.

자료마다 모두 경쟁적으로 나가르주나와 百乘 王朝(아마도 ‘안드라’ 영토⁵⁰⁾를 지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따와하나Śātavāhana’ 혹은 ‘사따까르니Śātakarṇi’)의 한 왕과의 우정 및 연금술에 얽힌 공조 관계를 다룬다. 이 왕조는 BCE 2세기 혹은 1세기부터 CE 2세기 말 이후, 안드라 영토에 속하는 다냐까따까(Dhānyakataka)⁵¹⁾와 아마라와띠(Amarāvati)⁵²⁾ 주변에서 몰락하고 마는데, 몰락 이전부터 이미 데칸(Dekhan)⁵³⁾ 제국 정복을 위해 승가간와스족

42) Moriz Winternitz, 1863~1937), 『인도 문헌사(History of Indian Literature)』, Vol II, Calcutta, 1933, p. 341~348. 빈터니츠는 체코 출신 오스트리아 인도학자. 『인도 문학사(Geschichte der indischen Litteratur)』. 1. Leipzig : C. F. Amelang, 1909(1905) 저술.

43) 『楞伽經』, ed. 난조 분유(B. Nanjio, 1849~1927), Kyoto, 1923, p. 286; Taishō 671, k. 9, p. 569 a; Taishō 672, k. 6, p. 627 c. 분유는 일본의 승려 불교학자로 산스크리트 경전 연구 개척자.

44) 『大方等無想經』, L. de La Vallée Poussin의 티베트어 *Madhyamakāvātāra*에서 인용, Saint Petersburg, 1912, p. 76; Le Muséon에 번역 게재, 1910, p. 274. — *Dharmarakṣha*의 한역, Taishō 387, k. 5, p. 1099~1100, P. Demiéville의 연구, 『대방등무상경의 경로에 관하여(Sur un passage du Mahāmeghasūtra)』, Bull. de l'Éc. fr. d'Extrême-Orient, Vol. XXIV, 1924, p. 227~228. — G. Tucci의 티베트어역 Bkaḥ-ḥgyur 연구, 『인도 비평(Animadversiones indicæ)』, Journal and Proceedings of the Asiatic Society of Bengal, Vol. XXVI, 1930, p. 145~147. — Bu ston, 『佛敎史(Choshbyun)』, E. Obermiller 역, II, Heidelberg, 1932, p. 129.

45) 『摩訶摩耶經』, Taishō 383, k. 2, p. 1013 c. — J. Przyluski, 『아쇼카 황제의 전설(Légende de l'empereur Aśhoka)』 참조, Paris, 1923, p. 163~164.

46) 『大方廣菩薩藏文殊師利根本儀軌經』, ed. Ganapati Śāstrī, Trivandrum Sanskrit Series, p. 616~617.

47) G. Tucci, *Animadversiones indicæ*: VI. 『성취자들의 산스크리트 전기 및 나가르주나와 관련한 몇몇 문제들(A Sanskrit Biography of the Siddhas and some questions connected with Nāgārjuna)』, Journal and Proceedings of the Asiatic Society of Bengal, Vol. XXVI, 1930, p. 138~155.

48) S. Lévi, 『인도 말기 왕조 불교에 관한 새로운 자료(Un nouveau document sur le bouddhisme de basse époque dans l'Inde)』, Bull. of the School of Or. Studies, Vol. VI, part 2, p. 427~429.

49) *Kin kang ting king ta yu k'ie pi mi sin ti fa men yi kue*(『金剛頂經大瑜伽祕心地法門義訣』(唐 不空撰), Taishō 1798, k. 1, p. 808 a~b. — R. Tajima,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 연구(Etude sur le Māhāvairocanasūtra)』, Paris, 1936, p. 30~32 참조.

50) 이 왕조와 관련하여 다음 저술들 참조. L. de La Vallée Poussin, 『마우리아 왕조 시기 인도(L'Inde aux temps des Mauryas)』, Paris, 1930, p. 206~222; 『인도 왕조와 역사(Dynasties et Histoire de l'Inde)』, Paris, 1935, p. 184~185; 르네 그루세(R. Grousset), 『십오세기 초기 동아시아(L'Asie orientale des origines au XV^e siècle)』, Paris, 1941, p. 53~54, 72~77.

그루세는 프랑스 역사학자이자 아카데미 프랑세즈 회원, 『붓다의 자취를 따라(Sur les traces du Bouddha)』, 1929, 『스텝 제국, 아틸라, 징기스칸, 티무르(L'Empire des steppes, Attila, Gengis-Khan, Tamerlan)』, Paris, Payot, 1939.

51) 현재의 안드라 주 다라니코타(Dharanikota)

52) B.C.E 3세기 무렵 설립된, 스투파로 유명한 안드라의 한 지역.

53) 인도 남부 데칸고원으로 유명한 지역.

(Śuṅga-Kānvas) 및 샤카족(Śakas)과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실뱅 레비가 다양한 자료들을 모아 백승 왕조와 쿠산(Kuṣaṇa) 왕조의 삼대 왕 까니슈까(Kaniṣka)와의 경쟁 관계를 주제로 다양한 일련의 전설들을 결부시키고 있다.⁵⁴⁾

과거에 이어 최근까지 이루어진 고고학적 발견들 모두가 부분적으로는 위 문헌 자료들의 내용을 입증해준다. 티베트 사학자들은 나가르주나가 고다와리(Godāvarī)강⁵⁵⁾과 크리슈나(Kriṣṇā) 강 남부 사이에 위치한 텔레구어(telegu)⁵⁶⁾ 사용 국가 안드라에서 말년을 보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지역은 고고학 유적이 많이 발굴되어 명성이 높다. 다나야까따까(Dhānyakāṭaka), 현재의 다라니코트(Dharanikot)에 해당하는 크리슈나강 남부 지역의 고도, 아마라와티 유적으로부터 서쪽으로 일 마일 떨어진 군투르(Guntur)⁵⁷⁾에 위치하고 있다 - 크리슈나강 남쪽 상류 지역의 골리(Goli)와 나가르주니곤다(Nāgārjunikoṇḍa)⁵⁸⁾ : 북서쪽에 위치한 자가야타빠따(Jaggayyapeta). 당시 소문을 따르면 나가르주나가 시다냐까따까(Śīdhānyakāṭaka, Dpal ḥbras spuṅs)⁵⁹⁾에 성지를 조성했던 것 같다. 성지를 벽으로 두르고 벽 내부에 백팔 개의 방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한다.⁶⁰⁾ 일부 사학자들은⁶¹⁾ 나가르주나가 스리빠라와따(Śrīparvata)의 크리슈나강 암벽 돌출부에 지은 사원에 자신의 거처를 마련했으리라 여긴다. 그리고 이곳을 샤따와하나 왕이 나가르주나 보디사뜨와를 위해 바닥을 파내 조성한 브라흐마라기리(Bhramaragiri)⁶²⁾ 혹은 벌들의 산(Mountain of the Bees)과 동일시하고 있다.⁶³⁾ 이 지역에서 발견된 비문들이 이 정보들의 실제성을 입증한다. 아마라와띠 불탑의 외부 난간에는 안드라 왕조의 풀루마이(Pulumāyī) 왕과 야냐스리(Yajñaśrī) 왕⁶⁴⁾의 비문이 새겨져 있다.⁶⁵⁾ 일부 사학자들은⁶⁶⁾ 나가르주나의 「친구에게 쓰는 편지」는 야냐스리 왕에게 쓴 것이라 주장한다. 자가야빠따(Jaggayyapeta) 불탑⁶⁷⁾ 부근에서 발견된 비문은 『대덕룡수아도리(Bhadanta

54) S. Lévi, 『까니슈까와 샤따와하나(Kaniṣka and Śātavāhana)』, Journal Asiatique, Jan.~Mar. 1936, p. 61~121.

55) 길이 1465km로 갠지스 강에 이어 인도에서 두 번째로 긴 강. 인도 서부의 마하라슈트라 주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흘러 안드라프라데시 주를 지나 벵골만에 흘러드는 강.

56)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인도의 이십이 공용어 중 하나. 드라비다어에 속하며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주, 텔랑가나 주,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의 공용어.

57) 안드라프라데시 주의 도시로, 군투르 구의 구청 소재지.

58) 안드라프라데시 주의 주도인 하이데라바드에서 남동으로 150km 지점에 위치한 도시. 현재 인도에서 가장 풍부한 불교 유적이 남아 있는 유적지 중 하나로 나가르주나 이름을 따서 붙여진 도시. 불교 대학과 사원이 많아 중국·간다라·벵골·스리랑카 등지에서 불교도들이 이곳으로 유학했다.

59) *Bu ston*, transl. E. Obermiller, II, p. 125.

60) *Tāranātha*, transl. by Franz Anton Schiefner, St. Petersburg, 1869, p. 71.

61) *Bu ston*, II, p. 127; *Tāranātha*, p. 73, 81, 303; *Dpag bsam ljon bzañ*, ed. Candra Das, Calcutta, 1908, p. 86.

62) *Po lo mo lo k'i li*

63) Hiuan tsang, *Si yu ki* 『大唐西域記』, T 2087, k. 10, p. 929 c. - Bhramaragiri-Śhrīparvata의 일치 여부에 관해서는, T. Watters, *On Yuan Chwang's Travels*, Vol. II, London, 1905, p. 207~308 참조.

64) 耶耆那舍利王(Gautamīputar Yajñaśrī)

65) L. de La Vallée Poussin, *L'Inde aux temps des Mauryas*, p. 233.

66) René Grousset(1885~1952), *L'Asie Orientale des origins au XV^e siècle*(Histoire Générale. - Moyen Age X), Paris, 1941.

67) 제임스 버지스(James Burgess, 1832~1916) 『아마라와띠 대탑에 관한 노트(Notes on the Amarāvati Stūpa)』, Madras, 1882, p. 57. 버지스는 영국 문학박사, 인도 고미술연구소(The Indian Antiquary, 1872)를 창립하고, 19세기 인도 고고학과 유물 발견에 큰 공적을 남김. 『아마라와띠 불탑들(Buddhist stupas of Amaravati)』, 1887, 『인도의 불교 예술(Buddhist art in India)』, 1901(증보) 등.

Nāgārjunācārya)⁶⁸⁾를 언급한다. 나하랄라보두(Nāharallaboḍu)의 나가르주니꾼다 길상공덕 장엄대탑(mahācetiya of Nāgārjunikoṇḍa)⁶⁹⁾ 부근의 한 비문에는 재가 불자 보디시리(Bodhisiri)가 건립한 건물들이 기록되어 있고, 비자야뿌리(Vijayapurī) 서쪽 부근의 스리빠르와따(Śrīparvata) 소재 사원이 나가르주나가 입적한 그 스리빠라와따 사원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⁷⁰⁾ 일반적으로 나가르주니꾼다 기둥에 새겨진 비문들은 나가르주나 시대의 남인도 불교에 관한 소중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⁷¹⁾ 이 비문들 덕분에 우리는 경전 문헌(디가, 맛지마 및 뽀짜마뚜까⁷²⁾), 부파들(아마도 마하상기까⁷³⁾까지 포함하여, 까이띠까,⁷⁴⁾ 아바라샤일라,⁷⁵⁾ 뿌르와샤일라,⁷⁶⁾ 바후수루띠야,⁷⁷⁾ 마하샤사까⁷⁸⁾), 교의들 그리고 특히 안다까족(Andhakas)의 불교 확장 영역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비문에 관한 체계적 연구는 기껏해야 초보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⁷⁹⁾ 이러한 비문들의 내용과 특히 이들과 상충되는 까따와투(Katāvattu)의 안다까족 논제들과의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⁸⁰⁾ - 『라자따랑기니』⁸¹⁾에서 ‘사다라드바나’,⁸²⁾ 라고 명명한, 아마도 나가르주나가 주석한 것으로 여겨지는 불교 사원에 관한 언급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⁸³⁾ - 마지막으로 부뵤과 따라나타에 의하면 나가르주나는 나란다(Nālandā) 소재 판뜨라 불교의 거점 사원에 머물며 이곳을 유물로 장엄하고 기적들을 행해 보였다. 이 지역의 체계적 발굴이 정기적으로 진행되어⁸⁴⁾ 나가르주나와 나란다에 광명이 깃들 날이 오리라 기대해 본다.

나가르주나에 관해 모을 수 있는 문헌학적·고고학적 정보들은 매우 다양하고 그토록 오랜 세기를 걸쳐 폭넓게 펼쳐져 인도의 많은 지역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을 단순히 전기적 요소 관점에서 고려하면 오류를 범하기 쉽다. 나가르주나라는 인물과 관련하여 이 정보들이

68) 『大德龍樹阿闍梨』

69) 『吉祥功德莊嚴大塔』

70) L. de La Vallée Poussin, *Dynasties et histoire de l'Inde*, p. 232.

71) 장 필립 보젤(J. Ph. Vogel), 『나가르주니꾼다의 불교 유적지 프라크리트 비문들(Prakrit Inscriptions from a Buddhist Site at Nāgārjunikoṇḍa)』, Epigraphia Indica, XX, i, p. 1~37.

72) Pañcamātuka(Pañca-nikāya, prakrit paṃca-mātuka)

73) Mahāsāṃghika, 大衆部

74) Caityika, 制多山部

75) Aparāśaila, 西山住部

76) Pūrvaśaila, 東山部

77) Bahuśrutiya, 多聞部

78) Mahāśāsaka, 化地部

79) N. Dutt, 『나가르주니꾼다 비문들에 관한 주석(Notes on the Nāgārjunikoṇḍa Inscriptions)』, Indian Historical Quarterly, Vol. VII, 1931, p. 633~653; L. de La Vallée Poussin, 『불전 주석(Notes de Bibliographie bouddhique)』, Mélanges Chinois et Bouddhiques, Vol. I, 1931~1932, p. 382~383; *Bibliographie Bouddhique*, IV~V, Paris, 1934, p. 135.

80) 특히 사이크리티야야나(R. Saikrtyāyana), 『불교 탐구(Recherches bouddhiques)』, I. 『대승의 기원들(Le origines du Mahāyāna)』, Journal Asiatique, Oct.~Dec. 1934, p. 195~208을 보라.

81) *Rājataranḡinī*, 梵文王統史

82) Ṣaḍarhadvana, The Forest of the Six Arhats

83) 람 찬드라 카크(Ram Chandra Kak), 『카슈미르 고대 유적(Ancient Monuments of Kashmir)』, London, 1933(2012), p. 105~111; 『인도 고고학 목록 연감(Annual Bibliography of Indian Archeology)』, VIII (1933), p. 22; XI (1936), p. 21. 람 찬드라 카크(1893~1983), 인도 고고학자, 잠무 카슈미르(Jammu and Kashmir) 주 수상 역임.

84) 하스무크 디라즐랄 상갈리아(Hasmukh Dhirajlal Sankalia), 『나란다 대학(The University of Nālandā)』, Madras, 1934; 『인도 고고학 목록 연감(Annual Bibliography of Indian Archeology)』, I (1936), p. 12~13; III (1928), p. 19~20; VIII (1933), p. 8; IX (1934), p. 4를 볼 것.

지닌 가치를 폄하해서도 안 되지만 역사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 정보를 통해 나가르주나의 전기를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들을 나가르주나의 명성과 관련한 개혁 성향의 순수하지만 진지한 종교 운동의 증거로 상정한다면, 이 정보들은 원초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자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남부에서 출발한 이 개혁은 카슈미르와 인도 서북부까지 확산되어 시대의 흐름을 따라 실제적 변화를 도출해 갔다. 논리학과 형이상학으로 시작한 개혁은 환술에도 젖어들고, 연금술 학파의 영향을 받았으며, 중국에는 금강승(Vajrayāna) 따프라 불교에 이르게 되었다. 아무리 간략하게나마 이 유구한 역사를 묘사한다 한들 그 여정은 너무도 장구해지리라. 다시 Mppś로 돌아와 간략하나마 분석이 필요한 도입부 열다섯 편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
* *

연기(Nidāna)를 설하는 제일편이나 『이만오천송반야경』의 서두는 모든 경전이 그러하듯 전통적 신앙 고백 “이와 같이, 나에게, 들렸다, 한 때(EVAM MAYĀ ŚRUTAM EKSAMIN SAMAYE)”로 시작하고 경을 설한 주체와 대상, 설해진 장소를 알려주며 다음과 같이 그 정당성의 증거를 제공한다 : “이와 같이, 나에게 들렸다, 한 때. 바가와뜨⁸⁵⁾가 독수리봉⁸⁶⁾ 라자그리하⁸⁷⁾에, 아난다를 제외한 열한 가지 빼어난 공덕을 지닌 오백 빅슈,⁸⁸⁾ 오백 빅슈니,⁸⁹⁾ 오백 우빠사까,⁹⁰⁾ 오백 우빠시까,⁹¹⁾ - 중요한 스물 두 보디사뜨와 마하사뜨와가 이끄는-스물아홉 공덕을 구비한 거대한 보디사뜨와 마하사뜨와⁹²⁾ 무리와 함께 머물고 있었다.”

Mppś는 이 첫 구절에 대한 열세 편의 해설을 다음과 같이 할애하고 있다.

卷第一

제일편⁹³⁾ - 붓다가 마하쁘라즈나빠라미따를 설하는 스무 가지 이유

제이편~제삼편 - “이와 같이, 나에게, 들렸다, 한 때(EVAM MAYĀ ŚRUTAM EKSAMIN SAMAYE)”라는 문장에 관한 설명

제이편 - 축어적 설명

卷第二

제삼편 - 총체적 설명

제사편 - 바가와뜨에 관한 설명 및 붓다에 적용한 다른 지칭들 - 붓다의 일체지에 관한 논고

85) Bhagavat, 世尊

86) Gṛdrakūṭapārvata(The Vulture Peak), 靈鷲山(耆闍崛山)

87) Rājagṛha, 王舍城

88) Bhikṣu, 比丘

89) Bhikṣuṇi, 比丘尼

90) Upāsaka, 優婆塞

91) Upāsikā, 優婆夷

92) Bodhisattva Mahāsattva, 菩薩摩訶薩

93) 篇

卷第三

제오편 - 수뜨라 장소: 붓다의 거처(vihāra)⁹⁴ - 라자그리하 시와 그 이름의 기원 - 독수리
봉 - 라자그리하와 슈라와스티⁹⁵에 자주 머무름 - 붓다의 슈라와스티와 독수리봉 선호
(제육편~제팔편 - 붓다를 둘러싼 상가⁹⁶)

제육편 - 빅슈 상가⁹⁷ : 이해해야 할 빅슈와 상가의 의미 - 현재 빅슈의 열한 가지 공덕 -
아르하트들이 붓다를 둘러싼 이유 - 아난다가 아르하트가 되지 못한 이유 - 그 이름의 기원
제칠편 - 빅슈니 상가, 우빠사까와 우빠시까

卷第四

제팔편~제십삼편 : 보디사뜨와-마하보디사뜨와 상가 :

1. 제팔편 - 보디사뜨와 : 상가에서의 그 위치 - 용어의 정의 - 비발치(vaivartika)⁹⁸ 보디
사뜨와 및 아비발치(avaivartika)⁹⁹ 보디사뜨와 - 아비다르마 체계 내에서의 보디사뜨와¹⁰⁰
- 대승 체계 내에서의 보디사뜨와

卷第五

2. 제구편 - 보디사뜨와에 적용된 마하사뜨와의 지칭
3. 제십편 - 보디사뜨와의 공덕 : n° 1~18.

卷第六

4. 제십일편 - 보디사뜨와의 공덕 : n° 19~21.
5. 제십이편 - 보디사뜨와의 공덕 : n° 22~24.

卷第七

6. 제십삼편 - 보디사뜨와의 공덕 : n° 25~29. - 중요한 스물 두 보디사뜨와

제십사편 그리고 제십오편은 초품 제이부를 포함한다. 초품 제이부는 십막으로 구성된 한 편
의 희곡처럼 제시되는데 Mppś 卷第九 p. 122 b 24~122 c 6의 간략한 분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본다.

제일막.¹⁰¹ 붓다, 사마디라자사마디¹⁰²에 들다. - 사마디에서 깨어난 붓다, 첫 번째 온몸¹⁰³

94) 精舍

95) Śrāvasti, 舍衛城

96) l'Assemblée, The assembly

97) l'assemblée, The assembly

98) vivartiya, 退轉

99) avinivartaniya, avivartika, 不退轉

100) 까뜨야야나, 가다연니자(迦多衍尼子, Katyāyanīputra)가 저술한 『아비달마발지론(阿毘達磨發智論)』
의 보디사뜨와 의미를 전하는 부분 : “누구를 보디사뜨와라 부르는가? 스스로 깨달고 이어서 나머
지 다른 사람들을 깨닫게 한 자가 보디사뜨와라 불린다. 필히 붓다가 될 자를 보디사뜨와라 한다.”
Mppś, T. I, p. 245. 「대지도초품총설 여시아문석론 제삼」의 원주 1159 참조.

101) 라모트가 내용 이해를 위해 편의상 구분하여 제시한 단위

으로 웃다. - 붓다, 발바닥과 나머지 신체 부위에서 빛이 뿜어져 나온다. - 그 빛이 삼천세계¹⁰⁴)와 시방세계를 비추다 : 그 빛이 닿은 모든 존재들 깨달음에 들다.

제이막. 붓다, 피부 모공 전체¹⁰⁵)로 두 번째 웃음 짓다 : 거기서 빛이 발해 삼천세계와 시방세계를 비추다. 그 빛을 쬐 존재들 모두 깨달음에 들다.

제삼막. 붓다, 평소의 광채로 삼천세계와 시방세계를 비추다 : 그 빛을 쬐 존재들 모두 깨달음에 들다.

제사막. 붓다, 혀를 끌어내어 삼천세계를 덮다 : 세 번째 웃으니 붓다 혀로 빛을 발하다 : 그 빛 위로 피어난 연꽃 위에서 가공의 붓다가 여섯 빠라미따를 설하다 : 이 설법 들은 자 모두 깨달음에 들다.

제오막. 붓다, 사자유희사마디¹⁰⁶)에 들어 여섯 방식으로 삼천세계를 요동치게 하다. - 여섯 겁 지진에 관한 묘사. - 지진이 잦아들자 즐거워하는 존재들. - 삼천세계의 나쁜 운명¹⁰⁷)에 빠진 존재들이 욕계¹⁰⁸)의 인간 혹은 천신으로 다시 태어나다. - 이들이 붓다에 다가가 경의를 표하다. - 동일한 장면이 시방세계에 펼쳐지다. - 삼천세계에서 약자와 환자가 완치되고, 가난한 자들이 위안을 받다. - 우애로운 자비로 모든 존재를 가득 채우다 ; 이들이 공덕을 실천하고 정결을 유지하고, 거대한 행복을 느끼고, 경이로운 지혜를 즐기다.

제육막. 붓다, 삼천세계에서 초자연적 거대한 공덕을 보이다.

제칠막. 붓다, 꽃을 들고 자신의 주위로 다가온 삼천세계의 주민들에게 일상의 욕신¹⁰⁹)을 보이다. 그 꽃을 붓다에게 던지다. - 그 꽃들이 공중에서 정자(kūṭāgāra)를 이루다. - 화환과 꽃다발이 허공에 걸리다. - 삼천세계와 시방세계가 금빛으로 물들다. - 개개인 모두 붓다가 자신에게 개별적으로 설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다.

제팔막. 붓다가 네 번째 웃다. 이 웃음 속에 삼천세계와 시방 세계 존재들이 무리 속에서 서로를 알아보다.

제구막. 동방 세계 끝에 머무는 라뜨나까라¹¹⁰) 부처가 라뜨나와띠¹¹¹)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 사만따라슈미¹¹²) 보디사뜨와가 라뜨나까라 부처에게 자신이 본 경이로움의 이유를 물었다. - 라뜨나까라 부처가 답하길 사바¹¹³) 세계를 다스리는 샤까무니 붓다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 답하다. - 사만따라슈미 보디사뜨와가 붓다에게 경배하러 갈 것을 제청하다. - 라뜨나까라 부처가 이를 수락하고 찬양하며 샤까무니에게 올릴 고귀한 연꽃을 하사하다. - 사만따라슈미 보디사뜨와가 다른 보디사뜨와들과 사바세계로 길을 떠나다. - 출발하기 전에 동방 부처에게 경배하다.

제십막. - 사만따라슈미 보디사뜨와, 선물을 지참하고 붓다 주위에 이르러 붓다의 발에 절을 올린다. - 사만따라슈미 보디사뜨와, 라뜨나까라 부처의 이름으로 붓다를 경배하고 붓다를 위

102) samādhirājasamādhī, 三昧王三昧

103) sarvakāya, 遍身

104) trichiliocosme

105) sarvaromakūpa

106) Siṃhāvīkrīḍitasamādhī, 獅子遊戲三昧

107) les mauvaises destinee, the bad destinies, *akuśala-gatīh*, 惡道

108) kāmādhātu, 欲界

109) prakṛtyātmabhāva, 真自性

110) Ratnākara, 寶積佛(剌那伽羅)

111) Ratnāvati, 多寶

112) Samantaraśmi, Universal Brightness, 普光菩薩

113) Sahā, 娑婆

해 라트나까라가 하사한 연꽃들을 붓다에게 다시 헌정하다. - 샤까무니 그 꽃을 동방의 부처에게 던지다. - 그러자 곧 동방 곳곳이 꽃들로 가득 넘치다. - 그 하나하나의 꽃 위마다 상상의 붓다가 여섯 빠라미따를 설하다. 붓다의 법칙을 받은 모든 존재가 깨달음에 들다. - 사만따라슈미 보디사뜨와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샤까무니에게 경배하다. - 제구막과 제십막에 관한 상세한 서술이 다른 아홉 세계에서도 또 일어난다. - 사바세계가 경이롭게 변하다. - 사바세계가 붓다 영역들 가운데 가장 성대한 지역과 같은 경지에 이르게 되다. - 샤까무니, 자기 앞에 하나 된 거대한 상가를 응시하다.

*
* *
*

독자는 외형만으로 속단하지 말길 바란다. 처음 읽는 독자에게는 유치한 구성을 드러내는 듯한 이 도입부야말로 실제로는 한 마디 한 마디가 제 역할을 수행하고, 엄선된 구절 모두 정해진 순서와 명확한 의도에 의해 배열된 명확한 저작이기 때문이다. 이 저술은 기나긴 탐구의 결집이다. 이 도입부를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필수적으로 주석 작업이 따르게 마련인데, 『대지도론』은 이러한 관점에서 바람직한 해설 모두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경우 명확한 출전을 명기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 논서는 경전의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인용으로 가득한 거대한 보고이다. 나는 경전 문건만큼이나 경전 외 불교 문헌을 통해서 이 인용들의 출전을 확인하려고 노력했다. 루벵 대학에서 발생한 두 번째 화재로 인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빈약한 자료들이 더욱 줄어들어 정보 추적이 더욱 힘들어졌다. 이런 이유로 C. 아카누마(Akanuma)가 내게 대여해준 『인도 불교 고유 명사 사전(*Dictionnaire des noms propres du bouddhisme indien*)』을 활용할 수 없었다. 대신 말라라세케라¹¹⁴⁾의 『빠알리 고유 명사 사전(*Dictionary of Pāli Proper Names*)』에서 샤반느가 번역하여 부록으로 추가한 『중국 트리빠따까에서 간추린 오백 가지 콩트와 우화(*Cinq cents contes et apologues tirés du Tripitaka chinois*)』 그리고 루이 드 라 발레 푸쟁이 번역한 바스반두¹¹⁵⁾ 저술 『아비달마구사론』¹¹⁶⁾의 풍부한 참고 사항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연구와 사실 확인을 거듭해가면서 스스로 꽤 풍부한 정보를 결합시키기에 이르렀다. 바램이라면 어느 날 다시 이 작업을 시작할 연구자에게 나의 작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몇몇 주석들이 비정상적으로 여겨질 만큼 장황한 것은 Mppó에서 유출 가능한 자료들의 완벽한 일람을 제시하려 했기 때문이다.¹¹⁷⁾ 바라건대 이 작업으로부터 후일 작업을 위해 조심스레 유보해 놓은 몇몇 총괄적 결론들이 도출되었으면 한다.

시절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출간하기 위해 대학 재단은 과거 출간 때만큼이나 관용을 베풀며 지속적으로 출간 비용을 부담하는 호의를 베풀었다. 필히 재단에 지극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서 하나의 의무인 것이다. 나의 충실한 출간인 장 뒤쿨로(J. Duculot) 씨를 언명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아니면 누가 내 작업이 이토록 적합한 외형을 갖추는 데

114) Gunapala Piyasena Malalasekera(1899~1973), 스리랑카의 불교학자. 세계의 불교 지도자들을 만나 국제불교기구 창립의 필요성을 설득하며 1950년 5월 세계불교도우의회(World Fellowship of Buddhists) 탄생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115) Vasubandhu, 世親

116) *Abhidharmakośa*, 『阿毘達磨俱舍論』

117) 실제로 라모트의 저술은 역자가 접한 서양서 역주 가운데 가장 장황하면서도 세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놓인 그 모든 역경을 극복해낼 수 있었으랴?

E. 라모트